

- ▶1987년 민정당 노태우 후보 호남고속철 공약
- ▶2007년 이명박 후보 공약 2012년 조기 완공
- ▶2008년 최상철 군발위원장 2015년까지 완공
- ▶1월7일 배국환 재정부 2차관 빨라야 2014년
- ▶1월9일 정중환 국토부 장관 2016년께 완공

오락가락 호남고속철

광주·전남 지역민의 큰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대선 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 측에서는 막대한 재정 수요 및 난공사 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은 어렵고 기본 계획(2017년 완공)에서 1~2년 정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이 이 대통령 당선 1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는 등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최종 완공 시기 확정 결과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2014년이나 완공될 것"이라며 "2012년 완공이라는 대선 공약은 물리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여당 및 야당 고위 관계자들도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완공은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2014년), 최소 1년(2016년)정도 단축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

약인 2012년 완공에 비해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정도 늦춰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여론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 부득이한 사정으 로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늦춰지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 수 준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1년 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해 9월 국정감사에서 한승수 국무총 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공약은 유효하다'고 밝힌지 불과 4개월여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까지 청와대와 의 조율을 마치고 이달 말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남극 정상서 U대회 유치 기원

지난 3일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4,897m) 정상에 오른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홍빈(사진 왼쪽) 대장과 정후식(광주일보 사회1부장) 대원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유치를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대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대원들은 12일 오후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홍빈 대장 인터뷰 6면 /남극=정후식기자 who@

박준영 지사 "조선사 퇴출 신중해야"

'전남의 입장' 성명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최근 진행중인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 전략산업으로 시작한 신생 중·소형 조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고려해봐야 한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 시했다.

〈관련기사 2면〉

박 지사는 지난 9일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전남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구조조정 기준에 따르면 전남도내 신생 조선사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갈

이 말했다.

박 지사는 또 "2004년 정부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이제 막 시작한 중·소 조선사를 퇴출시킨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하겠느냐?"라며 행정의 신뢰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뒤 "구조조정은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 조선사 구조 조정 기준으로 제시된 기준이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 잠재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금융논리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지사는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을 누가 선점할지는 국가정책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다.

전남도는 이번 성명서를 지식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역 중·소형 조선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SKY大 출신들 "9급이라도 좋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광주·전남 등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 공채 물러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명문 SKY대' 졸업생들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에 물러 격세지감을 실감하고 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A씨는 지난해 72명을 뽑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행정직(9급) 임용시험에서 5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 최근 일선 동사무소로 수습 배치됐다. A씨는 졸업 후 잠시 몸담았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3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오다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고려대 공대를 졸업한 B씨도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 광주에서 말단 순경으로 민원실과 방법순찰대에서 근무하다 최근 경장으로 한 계급 승진했다.

전남에서도 서울대를 졸업한 C씨가 지난 2007년 상반기 7급 행정직 공채에 합격, 구례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SKY대 출신이 간간이

눈에 띄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 시장에 존재하던 학벌의 벽이 점차 낮아지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눈높이'를 낮추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상경계열을 졸업해 광주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상호(43·7급) 씨는 "늦깎이로 9급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며 "출발은 조금 뒤졌지만 하위직이라도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반가운 가족, 기분 좋은 선물!

금강상품권

신부 이디시니 1588-6877